

한전, ICT·전력분야 아이디어 발굴 나선다

SW스타트업 육성·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24~25일 '2018 KEPCO 일렉스톤 경진대회'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ICT와 전력 분야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대학생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입상자에게는 공제시 채용우대 혜택도 제공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에 앞서 일찍이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지역 내 창업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ICT분야 'KEPCO Kids' 발굴 및 SW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2018 KEPCO 일렉스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ICT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성을 갖춘 역량 있는 KEPCO Kids를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회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한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대회 참가규모는 해커톤 15개팀과 아이디어톤 15개팀으로 총 30팀(팀당 4인 이하)이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팀원 아이디어를 도출,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웹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를 뜻한다.

우선 한전은 이번 대회 해커톤 주제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선정했다. 참가자들을 각자 팀을 이뤄 전력을 활용해 앱 등 공공서비스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이디어톤 분야 주제는 '전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공공서비스 제안'으로, 해커톤과 아이디어톤 분야 모두 참가팀들이 무박 2일 동안 팀원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해커톤의 경우 기존 전력데이터에 기상, 지도(GPS) 등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접목한 모바일 앱을 설계·시연해야 하고, 아이디어톤은 실제 구현 가능한 공공서비스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3주 가량에 걸쳐 접수한 제안서로 서류평가를 실시해 30팀을 선정하고, 이후 무박 2일 동안 에너지 및 SW코딩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고도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 수상 팀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최대 300만원 및 200만원, 장려상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입상자에게는 IT직군 공개채용에 지원하면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KEPCO Kids 인재풀로 관리해 창업을 희망하는 입상자에게는 K-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저변 확장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7일까지 한전 공식홈페이지(home.kepco.co.kr)나 온오프믹스 사이트(www.onoffmix.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DN, 발전ICT분야 10개 증기와 MOU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최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전KDN 상임이사 및 발전ICT분야의 10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SW기술지원과 개발인력의 수급과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한전KDN과 발전ICT 분야 중소기업은 ▲발전사 주재지역의 SW전문인력 수급 ▲SW 인재풀(Pool) 구성을 통한 효과적 인력 운영 ▲교육지원을 통한 SW기술력 향상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KDN과 발전ICT분야 중소기업은 격월 정례모임을 갖기로 했다. 상호 긴밀한 기술협력력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발전ICT분야 SW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성우 한전KDN 발전보안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SW개발과 보안기술을 컨설팅하고, SW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발전ICT 분야의 SW전문인력 수급해소와 기술전문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일본 이토츠키식품 전시회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일본 오사키에서 열린 일본 이토츠키식품 주최 전시회에 참여, 한국식품 수입업체 13개사와 함께 총 1500만불 상당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A2 제공>

aT, 한국식품 우수성 할랄시장 알린다

농식품 업체 36곳 참석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1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농식품과 할랄인증 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2018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를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K-Food Fair 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간 거래)·B2C(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통합 행사다.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36개사와 100여명이 넘는 바이어가 참여하며 수출상담회, 이슈세미나 등 B2B 행사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POP 미니콘서트, 쿠키쇼, 체험홍보부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국가기관(JAKIM)에서 할랄인증을 관리하는 할랄 중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만큼 할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출업체 및 바이어 대상 할랄 이슈세미나 개최를 통해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한국할랄수출협회와 함께 할랄존을 운

영, 한국 할랄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행사 1-2일차에는 1대1 매칭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며,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인근 국가 바이어가 초청될 예정이다. 저열량·저칼로리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지 트렌드에 따라 건강식품, 차류 등의 제품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사 3-5일차에는 현지 주요 복합문화공간인 쉐윈어 피라미드 쇼핑몰(Sunway Pyramid Shopping Mall)에서 비빔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K-POP 커버댄스 공연과 한류스타 에릭 남 미니콘서트, 퓨전 국악쇼 등의 이벤트와 함께 오픈키친과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백진석 aT 수출이사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하노이 K-Food Fair에 이어 아세안지역 시장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한국식품의 열기를 세계 최대 무슬림 국인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KC인증 기업 부담 줄어든 듯

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KC인증과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31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KC 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산업촉진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제도)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를 적합인증에서 등

록으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전파인증비용 부담 경감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동일 수입기자재의 경우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유통 시 인증받은 동일 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추가 시험 없이 전 인증자의 동의서를 받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비용 절감과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외 전파인증 신청 시 제품 회로도를 제

출하지 않은 전파인증 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올해 초 규제혁신 토론회와 중소기업인 상담회 등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